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 (3)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士,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ee - Chul

Ⅲ.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計劃

1. 傳統劇 室內公演場

우리의 演劇遺產은 대부분 野外劇形式이며 必然性과 특수한 상황아래 공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室內公演場으로 옮겨질 때에는 목적과 조건에 맞게 수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原形의 보존만을 유지할 때에는 공연장은 아외이어야 하며, 곳이나 놀이가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계기와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

이점은 연극유산의 발굴, 원형보존, 계승의 관점에서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되나 전통극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 하겠다.

傳統劇은 大衆속에서 傳承發展되는 대중의 것이다.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자라며 성숙되는 것이 傳統劇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傳統劇은 大衆과 함께 있어야 하고, 傳統劇公演場은 관중이 편안한 상태로 전통극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 都市에서는 屋外公演場보다는 屋內公演場이 한층 더 유리하다.

옥내공연장은 시기적으로, 기후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되며 이상적인 공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도시에서 演戲場所를 확보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접근시킬 수 있고, 이로써 大衆과 함께 傳統劇을 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大衆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전통극 유산의 本質과 고유형태를 검출한 다음, 이에 기초한 전통극의 전승발전은 우리 劇藝術의 위치를 확고하게 定立할 수 있게 한다.

2. 傳統劇 公演場의 規模限定

가. 適正規模算定의 基本前提

傳統劇 公演場의 適正規模算定을 위한 기본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公演場의 平面形을 결정하는 건축계획요소는 무대와 객석의 관계로써,

공연장의 특성에 따라 공연장내의 배치가 정해진다. 公演場의 특성은 공연되는 연극의 특성에 따르며 연극의 특성에 맞는 무대와 객석의 관계는 무대의 형태로써 파악된다.

舞臺形態의 이론에서 演技의 場에는 두가지의 대립되는 美學的 태도 즉 立方體와 球體의 原理가 있는데, 입방체의 원리는 이탈리아형 舞臺 즉 액자형무대 (Proscenium stage) 를, 구체의 원리는 圓型競技場에서의 圓型舞臺를 각각 그 理想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액자형무대는 具象的이며 事實的인 연극에, 원형무대는 非具象的이며 幻想的인 연극에 알맞다.

전통극 공연장 구성을 위한 기본요건은 첫째, 무대와 객석의 분리문제이다. 演劇美學的 原則의 문제에서 “劇의 宇宙”의 분리를 위하여 “演技의 場”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극예술은 있을 수 없다. 즉 연극의 장이 확립되고 분리되어 가기 전에는 진정한 연극도 극예술도 없었던 것이다.

둘째 舞臺와 客席의 접촉과 거리, 그 연극자와 관객의 “共感과 參加”의 문제이다. 무대주위에 관객이 삼면 또는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원형경기장이나 돌출무대 (Thrust stage) 의 경우와 같다. 이런 開放型舞臺 (Open stage) 의 특징으로서는

① 원형경기장무대 (Arena stage) 의 경우 연극공간에 벽이 없어 무대는 완전노출된 상태로서 무대에 대규모 장치는 없으며 소규모의 배경이나 장치를 사용한다. 돌출무대에서 한면에 벽을 설치하면, 연극자들의 登退場에 벽쪽을 이용할 수 있고 벽면을 이용한 대규모 장치도 가능하게 된다.

② 무대위 연극자들의 平面의배치는 다른 연극자들을 서로 가리게 되어 연극의 범위가 제한되며, 이 경우의 해결방법으로는 무대에 段을 주거나 객석의 구배를 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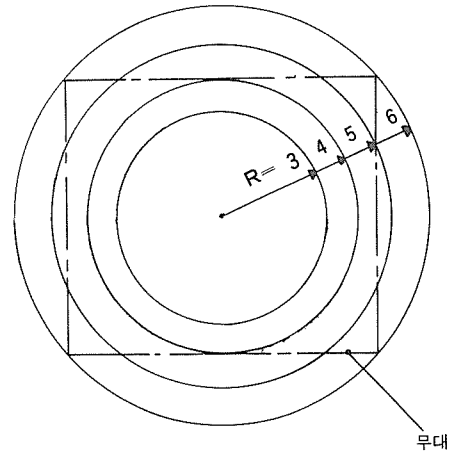
③ 연극자가 관객의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관객에게는 앞이나 뒤를 보이게 되므로 대사전달이 불리하게 된다.

④ 음향효과상 음원이 공연장의 중심부근에

◆ 金基哲
1944년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자영하고 있다.

(그림 1) 전통극 무대 규모

구분 범위	규모 (반지름 : M)	종 목	최대 출연인원	특 징
최대 범위	8	농악	24~21	춤, 음악
	6	북부 가면극	13	춤, 대사
		중부 가면극	8	노래, 재담
	5	굿	11	춤, 재담
남부 가면극		8	노래, 대사	
일반 범위	3	판소리	2	춤, 창
	7	농악	24~21	
	5	굿	5	
일반 범위	4	가면극	4~8	
	3	판소리	2	



(그림 2) Acoustical Image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음의 집중현상들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평면 및 단면형에서 내부계획, 재료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무대장치를 할 경우 장치의 일부가 무대 가운데로 크게 돌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면전환이 곤란하므로 소도구를 사용하거나 暗轉方式을 이용하게 된다.
 ⑥ 객석에서 연기자를 내려다 보는 경우가 많아, 무대바닥이 배경의 역할을 할 때가 많으므로 무대바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⑦ 돌출무대에서는 배경장치 등에 의한 공간변화를 어느정도 나타낼 수 있으나, 側面視線制限 (Side line) 의 한계를 초과하는 객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무대조명은 3,4방향에서 조명이 필요하며 액자형무대와 같이 一方向集中配光方式은 곤란하다. 또한 연기자가 무대끝에 있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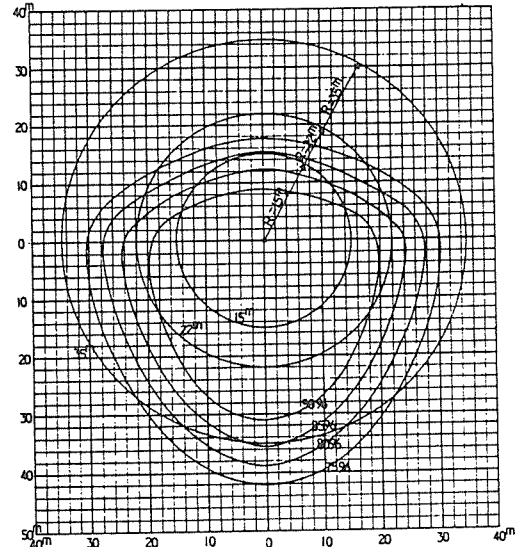
반대편 객석에 조명이 비취지는 경우등이 있어 연기자에 대한 조명보다는 배경에 비추는 효과조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公演場에서 무대와 객석의 규모산정을 위한 건축계획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무대의 규모는 출연자들의 동시출연인원수와 출연자들의 동선에 따라 설정되는 연기부분과 연기부분을 뒷받침하는 부속부분으로 형성된다. 부속부분은 연극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며 아울러 규모도 산정된다. 전통극의 동시출연자수와 동선을 고려한 무대의 규모는 (그림1)과 같은 범위내에서 산정되기도 하나, 과거의 무대 크기등과 비교할때 다소 크게 산정되어 있으며 연극의 연출기법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할 사항이다.

음환경을 고려한 객석의 범위는 音象 (Acoustical Image) 방법에 의해서 대략 산정된다. 音象은 音節明瞭度로써 표시되며 V.O.Knudsen의 실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음질명료도는 실내에서 음의 세기, 잔향시간에 의한 저하율, 소음에 의한 저하율, 실험에 의한 저하율로 표시된다. 音象에서 명료도별 음성도달 거리는 대략 (그림2)의 표와 같다.

客席규모산정의 요소인 시선거리는 공연장에서 다음의 범위가 그 限界로 통용되고 있다. 관객이 연기자의 표정을

음의 明瞭度	90%	85%	80%	75%
話者의 前方	30.3 m	35.7 m	49.8 m	42.4 m
話者의 側面	18.2 m	23.5 m	27.0 m	30.3 m
話者의 後面	9.1 m	12.8 m	15.4 m	18.2 m



읽을 수 있는 거리는 15m까지로서 순수 연극공연장의 범위가 되며, 대사가 있는 劇의歌舞, 소규모 國樂, 고전무용등은 一次許容限度인 22m까지 범위가 擴大되며, 二次許容限度는 35m까지로 대규모 국악, 그랜드오페라의 공연장에 적용시킬 수 있다.

실내공연장의 경우 室의 용적은 객석당 6~10m³범위에서 잔향시간 (Reverbration time) 을 고려하여 정하되, 언어의 명료도를 고려할 때에는 잔향시간을 짧게 한다. 통상적인 자료에 의거 객석당 면적을 통로포함하여 산정하면
 ○ 운동장 스탠드 : 0.45m²/席
 ○ 개별의자 : 0.62m²/席
 ○ 바닥의자 : 0.64m²/席

나. 판소리 공연장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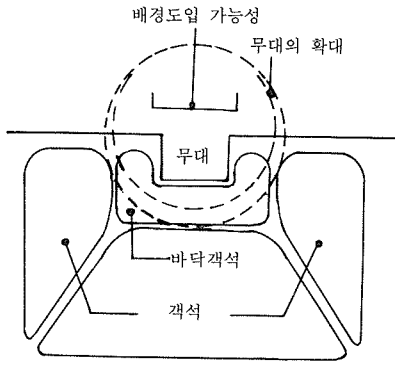
1) 평면형 판소리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공연장의 평면형은 舞台原理中 球體의 原理에 의한 무대형태로서, 正方形의 돌출무대 (Thrust stage)의 3면에 객석을 배치한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관객의 호응도나 주입세등을 고려하여 일부 관객들을 무대 주위에 별도로 두어 분위기를 돋우어 줄 필요가 있다. 소수의 관객 앞에서唱을 할때 唱者도 안정감을 얻는다고 한다. 따라서 무대중심

270°범위의 3면에, 5열이내의 바닥에 앉는 좌석을 배치하고 바닥좌석 옆 뒷편에 일반 기존극장식 개별의자의 좌석들을 배치한다. 무대의 나머지 한면은 출연자들의 등·퇴장과 분장실, 소도구실등의 무대관계실을 배치한다. 출연자들의 등·퇴장은 출입구를 무대관계실 좌우 양측에 각각 1개씩을 두어 이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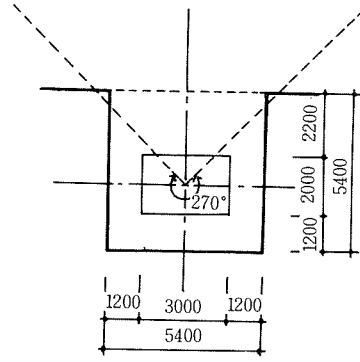
2) 무대의 규모

판소리의 무대는 판에 唱者 1人是 서고 鼓手 1人是 앉아서 演戲한다. 화문석이나 명석 한뇨 정도를 깔고 演戲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석 한뇨 크지면 판은 形成된다고 볼수 있다. 명석의 크기는 수공예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6尺×9尺(약 1.8m×2.7m)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서서 演戲하는 唱者는 행동반경이 크지 않고, 鼓手는 앉은 상태에서 판소리가 진행되므로 판소리 공연시 실제 이용되는 무대의 크기는 약2m×3m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무대주위에 여유공간을 주고, 공연시 뒤에 둘러치는 병풍과 이에 대치될 수도 있는 간단한 배경막을 고려하고, 안쪽에 안무대를 설치하면 판소리무대의 크기는 약5.4m×5.4m 정도가 된다. 안무대는 다수의 唱者에 의한 竝唱에 이용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판소리 공연장 개념도



〈그림 4〉 판소리 무대 규모

무대바닥은 과거 대청마루에서 연희되던 예에서와 같이 우물마루로 하며 唱者가 서고 樂土가 앉는 부분에는 화문석을 깬다. 객석과의 분리 및 음과 시선을 고려하여 객석바닥보다 30cm 정도 높이므로 唱者가 唱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내려다 보며 唱을 할 수 있으며 전좌석에서의 시선을 양호하게 하는데 한층 유리하게 된다.

3) 객석의 규모

판소리는 청각적예술로서 음환경요소가 객석규모 산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음의 명료도가 높은 범위는 객석의 적정범위가 되며 唱者는 표정보다는 연기적 행동이 크므로 시선의 一次許容限度인 22m 이내를 객석의 범위로 할 수 있다. 무대주위의 바닥좌석식 객석은 시선을 고려하여 5열정도로 하며 바닥좌석 뒤쪽에 높이 90cm 정도의 낮은 칸막이를 설치하여 限定된 분위기를 만들고, 칸막이 밖을 개별의자식 좌석으로 한다.

이러한 바닥좌석식 구획은 사랑방에서 연희되던 판소리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의자객석에서 관람할 때 무대와 바닥좌석 부분은 무대부분의 擴大感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판소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는 시선거리 22m 이내, 명료도 90% 이상인 범위로 면적은 약 450㎡, 수용인원 약 720명 이내가 적정범위라 할 수 있다.

4) 부속실, 其他

판소리무대를 구성하는 唱者와 樂土는 不可分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소리 고유의 演戲方式에 따라 무대위 唱者 옆에 唱者를 보며 앉아있는 樂土席을 설치하여 고유성을 살리도록 한다.

판소리는 청각적 예술로서 특히 음환경을 양호하게 조성시켜야 하므로 실내허용소음도는 NC-20 이하의 음악당에 준한다.

아울러 뒷객석의 음보장을 위한 음향반사판은 연기자 위에 白布帳 형태를 도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장의 형태에서 무대가 가운데 있게 되므로 실내의 마감재료등은 흡음, 확산처리로 하여 음의 집중이나 反響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명은 보조적 설명이 가능하므로, 사랑방형태의 제한된 곳을 밝게 비추는 방식으로 하여 바닥좌석 부분까지 무대의 擴大感을 일으키도록 무대효과조명방식을 택하고, 무대 위에는 배경이나 장치의 도입가능성을 勘案하여 무대에 면한 벽쪽에 영사식 배경이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치등을 위한 무대관계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 唱劇公演場의 규모

창극은 들려주면서 또한 보여주는 형식의 연극으로 판소리를 母胎로 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창극의 특성은 그 근원을 판소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판소리와 다른점은 좀더 본격적인 연극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에서 唱者 1인과 鼓手 1인이, 창극에서는 각역에 맞는 배우들과 음악을 위한 악사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극적내용과 형식이 연극화되었다.

창극은 원래 고유의 무대가 없었다.

개화기에 주로 서구식극장의 액자형무대에서 공연되었지만 이점은 우리 전통극형식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창극발전을 저해한 한 요인이 되었다.

1) 평면형

창극공연장의 평면형은 판소리의 특성과 무대규모의 확장에서 정해지 수 있다. 관객과의 접근을 위해 개방형 무대(Open stage) 중에서 돌출무대(Thrust stage)에 무대중심 270°범위에 객석을 배치하고 무대가 벽에 닿는 쪽은 안무대를 두어 악사석으로 한다. 이는 창극의 특성과 무대배경도입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형태가 된다.

2) 무대의 규모

창극은 원래 판소리 극본을 배역에 따라 分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등장인원 및 演戲행동범위에 따라 무대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초창기 창극이 공연되었던 무대의 규모는 원각사의 경우 폭 24尺, 길이 12尺(약 7.3m × 3.6m) 정도의 소형무대였다.

판소리 대본에 나타나는 동시등장인원은 춘향전의 경우 한사람부터 수백명의 배역들(과부들, 어사 출도시 삼행수들, 여러관원, 각읍수령등)이 등장하고 있다. 연극에서 대사가 없는 배역의 등장인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연출기법상 어느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역들의 동시등장인원 4~5명 이외에는 주무대의 無限定한 擴大보다는 연극형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극중 장소변화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장소전환에 사용할 수 있고, 단역들의 등장과 악사들을 위한 안무대의 설치에는 창극의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다. 이 안무대는 대규모장치를 가능하게 하고 주무대 보다 30cm 정도 단을 주어 보조무대로 사용하여 악사석을 들때 객석에서 시선조건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을 위한 唱의 보조적인 설정과 일본 歌舞伎의 예에서와 같이 창극에 배경, 장치등의 사용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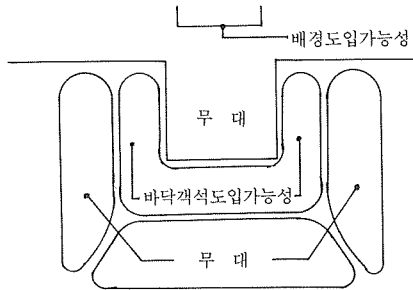
주무대의 규모는 동시출연자수의 추정과 과거 연희되었던 무대의 규모, 주역들의 연기범위에서 설정하면 〈그림6〉과 같이 할 수 있다. 무대는 전좌석에서의 시선조건을 양호하게 하고 객석의 구배를 너무 크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석바닥보다 45cm 정도 높이도록 한다.

3) 객석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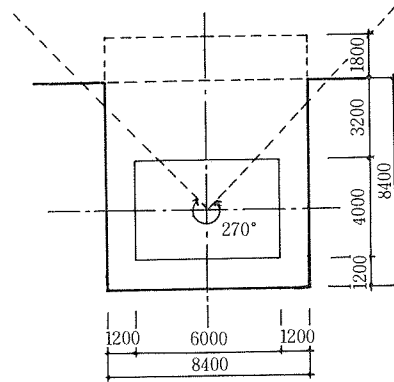
창극은 판소리를 모태로 한 특성에서 청각적인 분위기와 연기자의 표정에 의한 연기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객석의 범위는 音節明瞭度 90% 이상과 시선거리 15m 이내가 적절한 범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무대면적을 제외한 객석의 면적은 약 356㎡로서 좌석수 약 570석 정도가 창극공연장의 적정객석범위가 된다. 음절명료도 85%인 경우 면적 약 480㎡, 좌석수 약 770석까지는 허용한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뒷편 좌석에 대한 음의 보강장치로서 음반사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판소리에서와 같이 악사는 창극에서도 필수요소이므로 안무대에 악사석을 두고



〈그림 5〉 창극 공연장 개념도



〈그림 6〉 창극 무대 규모

배경에 대한 무대관리실을 함께 고려한다. 공연장 허용소음도는 연극기준 500석 이하 규모에서 NC-20 이하, 500석 이상에서 NC-25 이하를 유지한다. 공연장내 음보강과 장식요소로써 백포장형태의 음향반사판을 설치하고 조명은 연극을 위한 무대효과조명으로 하며 配光方式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라. 假面劇公演장의 규모

대표적 가면극의 놀이마당은 野外에서 임의로 설치되어 연희되었으나 이 놀이마당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들은 첫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인데 무대가 따로 설치되어 平面의 차이가 있거나 평지라도 명석을 깔거나 새끼줄을 쳐서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였다. 둘째, 무대가 가운데 있고 무대주위를 둘러싸고 객석이 있었다. 강변백사장 등의 넓은장소가 아닌 경우, 한면은 건물등에 의지하여 3면에 객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무대형태는 원형이 많으며 그 크기는 명석 5,6넝 정도이다. 넷째, 악사석이 무대위에 있었다. 다섯째 많이 연희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

가면극은 연극의 분류상, 插畫의인 장면 장면을 앞뒤 연관성 없이 엮어 가면서 그 장면의 과장된 상황에 인물을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笑劇 (Farce) 에 속한다고 한다. 과거 무대에서는 객석과의 사이에 간단한 경계선뿐인데 탈꾼이 분장한채 관중의 한사람으로서 관중속에서 대기하다가 등장하기도 하고 관중속으로 퇴장하기도 하는 演戲특성에 기초를 둔 그러한 공연장이었는데, 관중과의 접촉이 너무 밀접하여 관중의 열렬한 공감과 參加를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진다.

1) 평면형

假面劇은 관중을 모으고(길놀이), 관중이 모인 곳이면 演戲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限定된 공간에서도 연희장소의 任意性과 轉移를 나타낼 수 있는 공연장의 시도는 固有의 劇形式에 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면극공연장은 定方形의 主舞台 中心

270° 범위내에 무대주변 3면에 객석을 배치한 형태로 하며 나머지 무대 1면은 안무대를 설치하여 연결하고, 안무대에는 三鉉廳(樂土席)을 두도록 한다. 무대주위의 객석5열 정도는 바닥좌석으로 하여 이 바닥좌석중에는 연희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演戲者待機席을 두는 것이 가면극의 연희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무대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석규모가 작은 경우는 객석측면과 후면통로를 폭 2.1m 정도로 하여 演戲에 이용될 수 있게 하여 통로와 통로가 교차되는 부분은 2군데 정도 소규모演戲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幅4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간이무대를 만든다. 이형식은 空間式무대 (Space stage) 의 변형과 같은 것으로 제한된 공연장내에서 演技의 범위를 擴大하게 되고 과거 가면극연희시 공연되던 길놀이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공간을 만들어 주는 方法이 된다. 객석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객석중간의 橫通路와 縱通路의 폭을 넓혀 길놀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도 통로의 교차점은 간이무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희에 사용되는 모든 통로는 주무대에 연결되도록 하며, 또한 공연장 밖에 까지 연결시켜 주위환경이 공연조건에 맞출때 屋外內庭등을 이용한 연희장소의 擴張을 시도할 수 있다.

2) 무대의 규모

가면극의 무대는 獨舞와 群舞의 춤사위에서의 행동범위와 同時登退場時의 출연 인원수에 따라 규모가 산정될 수 있다. 과거 가면극무대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것은 명석 대여섯넝정도일 뿐이다. 일반 명석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해 본다면 명석 5넝의 경우 15尺×18尺(약 4.5m×5.5m) 6넝의 경우 18尺×18尺(약 5.5m×5.5m)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규모는 楊州訪仙폭포앞 공지 (13.5m×9.6m)나 駕山石長丞앞 공지(10m×6.6m)의 규모와 비교할때 演戲가능한 무대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 主舞台 안쪽은 段을 두고 높은 안무대를 두어 三鉉廳(樂土席)을 설치하도록 한다. 길놀이에 이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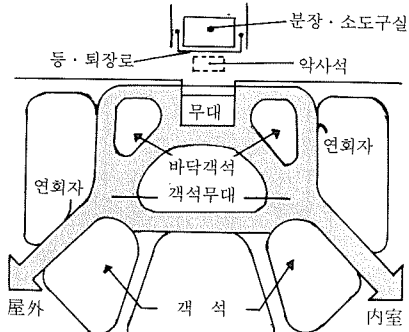
객석통로는 연희자 2명이 같이 갈수있는 최소폭 2.1m 정도로 하고 通路交叉點의 객석중의 무대공간은 폭4m정도 이상으로 5,6명이 群舞時 이용토록 하므로써 연희공간의 轉移와 任意性을 表出하는 方法으로 시도한다.

무대바닥의 재료는 탄력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연극무대의 共鳴現象은 발의 사용이 많은 가면극의 연희특성 때문에 연희자들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거 많이 연희되었던 장소의 바닥재료인 흙이나 잔디정도의 탄력성에 共鳴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무대바닥의 높이는 연희자들이 객석에서 登退場하는 것을 고려하여 객석바닥에서 무릎높이 (약45cm정도)를 넘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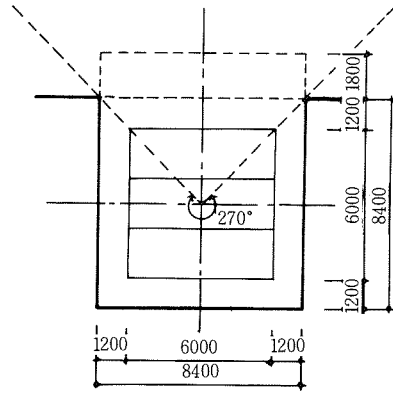
3) 객석의 규모

가면극은 연희시 假面때문에 대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음성만의 공연시 음절명료도는 90% 이상으로 하고, 얼굴의 표정등 세밀한 演技를 보여주기 보다는 가면에 의한 큰 몸짓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특징때문에 시선거리는 一次許容範圍인 22m까지 객석의 범위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객석의 적정규모는 면적 415㎡, 좌석 약1,640석 정도가 된다. 음압의 저하를 보강시킬 필요가 있으며 音擴聲장치를 도입할 때 시선거리 35m까지 허용2차범위로 하면 객석의 면적 약 1,250㎡, 좌석수 약2,000석까지를 공연장규모로 할 수 있다. 무대주위에는 바닥좌석을 5열정도 설치하여 출연자대기석을 겸한다.

객석에서의 시선거리는 일부문헌에 아래쪽에서 10°정도 위쪽으로 무대를 올려다 보았다고 했으나, 양주사직골의 주변 山勢나 訪仙폭포주변과 놀이마당이 형성되었다는 統營龍華寺계곡등의 地勢나, 鳳山탈춤이나 殷栗탈춤의 다락석등에서의 주관점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다는 위쪽에서 내려다 보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춤은 上體(손, 팔, 어깨)중심의 춤이다. 西歐舞踊이 주로 下體(다리, 발)중심의 무용으로 강약의 표현에 있어서도 動的인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림 7) 가면극 공연장 개념도



(그림 8) 가면극 무대 규모

해결한데 반하여 한국舞踊은 육체보다
靈의인 면을 강조하여 정신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祈禱하고 渴求하는 禪의 자세로
內向的 발전을 이루었다. 영적표현은
완만한 곡선위에 流動的인 동작들이 억제된
움직임 - 靜中動으로 나타내고 있다. 춤의
특성으로 보아도 주관점은 올려다 보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내려다 보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가면극의 三鉉廳(악사석)은 무대 위에 두되
객석에서 출연자들을 보는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무대 안쪽에 두고, 안무대는
段을 객석의 규모에 따라 45cm~60cm 정도
높여 전 객석에서 보이게 한다.
改服廳은 山台假面劇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대장치 일부로서
무대옆 객석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분장실은 소도구실등 무대관계실과
함께 안무대 뒷편에 따로 둔다. 무대와의
출입구는 무대양측에 두어 사용토록 한다.
음환경을 위한 허용소음도는 NC-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면극의 조명은 가면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한 舞台效果照明方式를 주로 한다.
실내공연장에서는 무대 앞부분 양측에
햇불이나 장작불의 상징적 요소로 도입하여
人工的效果照明으로 고유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야외의 경우 직접
장작불이나 햇불을 이용한다. 그러나
모닥불의 조도는 측정결과 2.5m 거리에서
400~600 lux, 5m 거리에서
100~150 lux 정도로 主照明으로는
照도가 낮은 편이므로 補助效果照明으로
이용하며 主舞台效果照明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조명방식 등은 돌출무대의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가면극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마. 가면극 野外公演場의 건축계획요소

오늘날에 公演場의 立地選擇은 경제적,
社會的 因子間的 상호작용에 앞서 公共의
이익 즉 도시계획적 측면이 앞선다.
그러므로 傳通劇公演場의 立地는 과거

任意性和 轉移에 따라 場所化되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築地는 버젓한데 유용하지는 못해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대지를 수정할 수 있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屋內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설비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傳通劇이 공연되던 것과 유사한
野外公演場을 만들 경우 그 지역의
微氣候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대책만을
세울 수 있다. 공연장에서 소음의 문제는
연기자의 대사전달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暗騒音 (Back ground
noise) 보다 5dB 이상 높게 이야기 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공연장에서
허용소음도곡선은 NC-25 이하 또는 소음도
40 dB 이하가 500席 정도의 규모에서
요구된다. 근래에는 음악당이나 극장에서
소음한계치를 20 dB(A)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시의 야외공연장에서
이 정도의 허용소음 이내를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野外公演場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은
공연장배치의 調定과 遮音壁, 樹木의
密植등으로 어느 정도의 차음만이 가능하게
된다. 공연장 주위에 차음벽 설치시에는
공연장 내부에서의 反響 등 제반음향상태를
충분히 예상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그 지역의 미기후에
대하여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가
고작이겠으나 바람의 경우 음환경에 지장을
주는 4 M/sec 이상의 바람은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야외공연장의 배치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정하며, 무대쪽에서
관객쪽으로 주풍향이 되도록 배치하면 한층
유리한 배치가 될 수 있다.

假面劇 野外公演場은 正方形의
主舞台中心 270°범위, 무대중심 3면에
객석을 배치하며, 원형이나 둥근형태에서
음의 결함발생요인을 피하고 무대의 나머지
한쪽면엔 무대관계실을 둔 건물을 세워
배경으로 하는 형태가 유리하다.

野外舞台는 무대와 객석 모두 인위적인

기후조절이 불가능하나 배경으로 사용되는
건물에는 분장실등을 넣고 기후조절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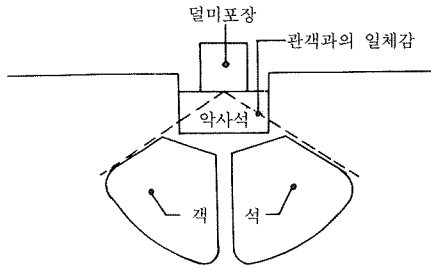
主舞台의 네모서리부분에는 보조조명을
위한 장작불이나 햇불을 놓을 수 있도록
한다. 운동장스탠드형 좌석은 시선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대와 스탠드좌석
앞열간에는 스탠드좌석과 같거나,
무대바닥재질과 다른 재질로써 바닥을 깔아
바닥좌석을 만들어 많은 관중의 수용과 다른
종류의 演戲時 무대바닥면의 擴大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음확성장치는 확성기로부터의
하우링 (howling) 등에 의한 음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산배치보다는
집중배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야외공연장 주위에 차음을 위해 樹林帶를
만들 경우 차음보다는 시각차단효과가
더크다. 수림대는 30m 폭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통
수림대는 7~10 dB 정도 감소시킨다.
차음벽을 설치할 때 길이가 충분해야 하므로
높이가 6m를 넘는 경우 종합적인 경제성
검토를 한다. 보통 이 정도의 차음벽은
10~15 dB(A) 정도 차음효과가 있으며
높이가 2배가 될 때 6 dB(A) 정도 추가
감쇄가 되므로, 예측되는 소음의 양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屋內公演場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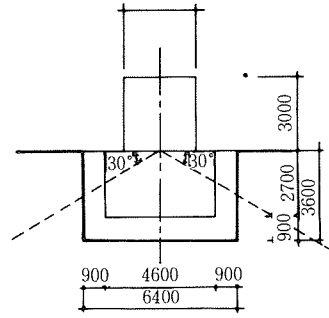
바. 人形劇公演場의 규모

傳統人形劇은 굿중패 또는 男寺堂이라
불리던 직업적인 유랑연예인들이
朝鮮朝후기 이래로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민중오락으로 제공하여 왔던 광대의
歌舞百戲의 하나였다. 人形劇의 공통된
내용은 巫俗文化요소의 殘存, 破戒僧에
대한 諷刺, 一夫妻의 삼각관계와
서민층의 생활상, 양반계급의 횡포와 그
形式道德에 대한 暴露와 嘲弄, 來世의
冥福을 기원하여 불교에의 귀의등 7내지
8막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일관된 연결성은
없으나 전체로서 당시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人形劇의 공연장은 하나뿐인 現存하는



(그림 9) 人形劇 공연장 개념도



(그림 10) 人形劇 무대 규모

박첨지인형극의 탈미포장규모를 적용시킬 수 있다.

1) 平面形

탈미포장과 탈미포장앞 악사석이 人形劇의 무대가 되며 탈미포장앞 120°범위에서 악사석 주위로 객석을 배치한다. 樂士席주위의 객석은 바닥좌석식으로 탈미포장을 향하여 방사상으로 배치하여, 樂士席과 객석을 접근시켜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함으로써 과거 人形劇놀이의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2) 무대의 규모

人形劇은 원래 “탈미포장”이란 고유무대가 있었으며 이 탈미포장을 기준하여 무대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탈미포장은 놀이판을 둘러친 포장안에 다시 포장으로 세운 일종의 액자식무대이며 탈미포장앞 무대면은 객석보다 30cm 정도 높여 樂士들이 관객들에게 보일수 있게 한다.

3) 객석의 규모

人形劇의 탈미포장은 일종의 액자형무대이므로 측면시선을 고려하여 탈미포장 앞에서 120°범위내에 악사석 주위에 좌석이 배치된다. 人形劇은 人形의 동작과 대사로써 이루어지므로 人形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각적 조건과 人形劇대사중에 산책이가 人形들과 주고 받는 대사형식을 취하고 있어, 산책이는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앉게 되어 관객에게 대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박첨지人形劇은 人形의 크기가 큰인형(35cm×80cm)에서 작은인형(5cm×10cm) 정도까지 되므로 視知覺上 인식을 위해서는 연기자의 세밀한 표정을 볼 수 있는 거리 15m 이내를 객석의 범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절명료도 90% 이상의 범위가 적정범위라 할 수 있으며 면적은 약156㎡ 정도로 좌석수 약250석이 되며, 음절명료도 85%까지 허용범위로 할때 면적은 약220㎡, 좌석수 350명정도가 人形劇 최대수용좌석이 될 수 있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樂士席은 固有方式에 따라 탈미포장앞에 두고, 공연장의 허용소음도는 연극을 기준하여 NC -25정도로 하는 것이

당당하다. 조명방식은 액자형무대에서의 방식과 樂士席을 밝히는 舞台效果照明方式이 人形劇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사. 傳通劇公演場의 建築計劃 규모중합 전통극공연장의 규모산정 결과, 건축계획규모를 종합하면 다음(표1)과 같다.

(표 - 1) 전통극 공연장 건축계획 규모

구분	공연물	관 소 리	창	극	가	면	극	인	형	극
무	모	양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탈미포장(악사석, 돌출무대)		
	면	수	1	2(주무대+안무대)	3(주무대+안무대+객석무대)	2(주무대+앞무대)				
	면적(M ²)		34	87	120	32				
	높이(cm)		30	45	45	30				
대	바	닥	우물마루(화문석)	우 물 마 루	흙, 잔디(탄력성 재료)	우 물 마 루				
	무대 위 시설		음양반사판	음향반사판	햇불조명설비	탈미포장막				
	출입구		좌, 우 2개	좌, 우 2개	좌, 우 2개	1개				
객	모	양	무대의 3면(270°)	무대의 3면(270°)	무대의 3면(270°)	무대의 1면(120°)				
	적	시선거리, 명료도	22M, 90%	15M, 90%	22M, 90%	15M, 90%				
	정	면적(M ²)	449	356	415	156				
석	용	수용인원(人)	720	570	670	250				
	허	시선거리, 명료도	.	15M, 80%	22M, 75%	15M, 80%				
	용	면적(M ²)	.	486	1,019	218				
용	수용인원(入)	.	770	1,640	350					
용적	(M ³ / 1 석)		6~10	6~10	6~10	6~10				
허용소음도			NC-20이하	NC-20이하	NC~25이하	NC-20이하				
무대와객석구분			무대 높이	무대 높이	무대 높이	무대높이, 탈미포장				
배악사석	경	적용 가능	적용 가능	개복청	탈미포장					
소도구	약	입 가능	약	간	탈미포장					
분장실	실	무대 뒷편	무대 뒷편	무대 뒷편	무대 뒷편					
조명	명	효과 조명	효과 조명	효과 조명	효과 조명					